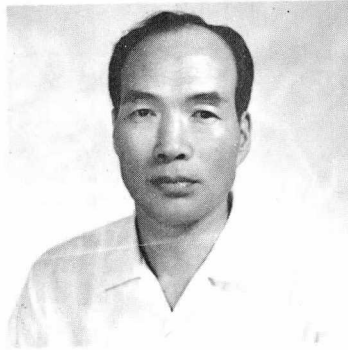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

우리나라 수도서울은 1960년 대만 해도 보잘것 없는 도시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고층빌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도시 재개발사업과 함께 사옥신축붐이 일어나 빌딩숲을 이루게 되어 지금으로부터 14년전인 1973년부터 정부에서도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이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새로운 방재지식과 보다 전문적인 방재활동이 보편화 되어 빌딩관계자 및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방재태세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화재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한국무역회관이 1973년 10월 준공할 당시만 해도 서울 시내 고층건물중 10대 건물내에 들었고 현



배 순 기  
〈한국무역협회 회관운영과장〉

대적 소방시설을 갖춘 건물이었지만 당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한국무역회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가지정도의 개보수 사항을 통보해 왔다. 본 회관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함으로써 14년이 경과한 오늘에 와서는 1건의 지적사항도 없이 완벽한 상태로 보완이 되

어 건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받은 바 있는 경험을 토대로 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제도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건물의 안전점검은 왜 필요한가하는 점인데 이것은 사람의 육체와 건물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며 죽음에 이를 때까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힘쓴다. 어린시절에는 부모님의 염려를 통해서, 어른이 되어서는 본인 자신을 위해 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고 병들었거나 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약을 먹고 의사의 지시대로 식생활에 주의하여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병에 걸려도 자기마음대로 살며 병원

을 찾지않고 살아간다면 그 생명은 짧게 끝나고 말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물주의 입장에서 볼 때, 건물이 준공되면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재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으나 기계의 이동 및 사람의 실수로 건물에는 여러가지 탈이 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건물의 사전안전점검이 요구되는 것이며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해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건물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절실히 필요해진다. 또한 그 진단에 따라 개보수를 하는 것이야말로 건물의 안전도 증진과 수명 연장의 지름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보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건물자재와 건물의 제반 시설물이 안고 있는 화재발생요인을 찾아내 현행 관련법규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고 처방에 의해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법규의 적용에 있어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 현실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지적해두고자 한다.

둘째로는 재점검확인사항으로서 사람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약을 먹고 주의하며 생활을 한다면 병이 완쾌가

되었는지 재진단을 해 보아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듯이 화보협회에서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의 여부를 재점검하는 것이 관할소방서의 임무인 것이다.

시정명령인 개보수를 게을리하고 있을때는 재촉구하여 보완이 되도록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못한 때는 소방서 개수 명령으로 고발을 해서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이행하게 된다.

이때 실무자들이 건물주나 소방서 사이에서 여러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는 관할소방서의 책임자는 건물주를 방문하여 그 상황을 재촉구하고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때 고발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건물관리 실무자들은 소방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려 해도 건물주의 협조(예산)가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물관리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재해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발생위험성이 가장 높고 발생시 손실의 규모가 큰 것이 바로 화재사고이다.

특히 고층건물일 경우 대부분 건물내에서 영위되는 업종은 일반사무실을 비롯해 음식점이나 다방, 유흥업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이를 데 없고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드나들기 마련이다. 게다가 최근 도심지에 짓고 있는 건물들은 거

의 전부가 적어도 10층 이상되는 초고층 건물들이기 때문에 화재시 발생될 문제점은 어느 경우에도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화재사고가 언제나 인간의 부주의와 방심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무서운 위험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화보협회에 의해 전문적으로 실시되는 특수건물 화재안전점검제도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과거 14년간 화보협회가 수행해온 안전점검 활동을 뒤돌아 볼때, 그동안 개선 및 보완을 촉구함으로써 건물의 수명이 연장되도록 기여한 것은 물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뚜렷한 업적이라 하겠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볼 때 건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온 화보협회와 건물주, 관할소방서가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협조함으로써 재난방지과 국가재산보호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지난 업적에 비추어 앞으로 이리한 협조체제를 통해 우리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으로 필자는 확신하는 바이다. ☐

내일굴 나라알굴 나라손님 내손님